



생명나눔실천본부 위크숍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법정 스님은 11월 29-30일 포천 산정호수 명성연수원에서 '자원봉사자 중간 관리자를 위한 위크숍'을 연다.



일주문



북한동포돕기 후원금 기탁
금강경동승회 대표 김재용 법사는 최근 북한동포돕기 후원금 500백만원을 사단법인 좋은벗들에 기탁했다.



고3 수험생 대상 수련회
파라미터청소년협회 회장 원택 스님은 11월 18-20일 낙산유스호텔에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를 개최한다.



인제성대상 수상자로 선정
남원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은 11월 13일 인제대학교 인제인성대 상운영위원회가 시상하는 제5회 인제인성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IT활용 정보검색 경진대회
경남 밀양 흥제중학교 배종우 교장은 11월 15-16일 재학생 및 인근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제3회 IT활용 정보검색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중앙위원회 개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은 12월 3일 조계사 불교대학 제1강의실에서 제3차 정기총회 겸 중앙위원회를 개최한다.



전국어린이 지도자 연수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정여 스님은 11월 15-16일 경주 동양유스호텔에서 제36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했다.



창립21주년 기념법회 봉행
등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동산불교대학 법당에서 창립 2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청담 스님 32주기 추모법회
서울 삼각산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11월 15일 도선사 대법당에서 청담 스님 32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장에
서울대학교 박세일 교수는 11월 1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한국불교어문학회장예
동국대 김승호 국어교육학과 교수는 최근 동국대 다학관에서 열린 한국불교어문학회 제13차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불교학 연구' 임기내 등재학술지로

불교학 연구회 3대 회장 이중표 교수

"'불교학연구'가 임기내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 정식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 교수는 "그간 해 주 스님이 뒤아 놓은 기반 위에서 불교학 연구진을 육성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현재와 같이 매달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연 2회 발간하는 학술지를 4회 발간할 예정"이라며 향후

11월 8일 불교학연구회 2003년 추계학술발표대회가 끝난 후 열린 임시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출된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사진)는

신인 회장 연구진 육성·학술지 연 4회 발간 추진 후 발전 방향으로의 포부를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불교학연구'가 학인의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되면서 연구회 회원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됐다"며 "지금의 열기가 식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회장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후 발전 방향으로의 포부를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부회장에 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 동국대 김복순 교수를 감사에 총남대 이영래, 동국대 김무봉 교수를 선출했다. 이들의 임기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4월까지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불교음악 레벨업 계기 됐으면..."

교성곡 '상월원각대조사' 작곡 이상규 교수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일대기를 음악으로 옮기면서 불교음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품을 썼습니다."



각 장의 도입부에 나레이션을 삽입함으로써 관객들의 이해와 감흥을 도왔다"며 "이 같은 시도가 1700여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이끌어 내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8일 KBS 공개홀에서 열린 제8회 천태예술제에서 처음 공연된 교성곡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를 작곡한 이상규 한양대 국악과 교수(60·사진)는 위상이 낮고 보급이 잘 되지 않은 불교음악의 현주소를 걱정했다. 아울러 불교음악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의 책임을 묻기보다 종단을 초월해 불자 모두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시간 분량의 교성곡 '상월원각 대조사'는 총 15장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상월원각 대조사의 탄생에서부터 열반까지의 일대기와 사상, 업적을 총망라했다. 대본과 작사는 박재천, 송정란 시인의 도움을 받았다.

이 교수는 "이번 작품의 특징은

특히 이 교수는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일대기를 음악으로 대하는 느낌은 이야기로 대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감상을 불러 일으킨다"며 "공연을 지휘하면서 환희심을 느껴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고 고백했다.

60년대부터 작곡을 해 온 이 교수는 90년부터 천태종과 인연을 맺어 왔다. 격년제로 열리는 합창제와 예술제를 지휘해 왔고, 2001년에는 '대각국사 의천' 교성곡을 직접 지휘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 삼보불교음악협회 부이사장으로 오랜 불교음악 보급활동을 펼쳐오기도 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위안부 할머니 아픔' 미국에 알릴 것"

나눔의 집 방문 재미교포 2세 권보미 씨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한을 미국인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11월 8일 미국인 동료 교사 25명과 함께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원장 원행을 방문한 재미교포 2세 권보미 씨(21·사진·대전 갈매중 원어민교사)는 "인권 문제를 부르짖는 미국인들조차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서 당시 이야기를 들으니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나눔의 집 방문도 권 씨가 동료 교사들에게 나눔의 집 소개함으로써 이뤄졌다. 권 씨는 나눔의 집 방문 느낌을 이렇게 털어놨다. "충격 그 자체였죠. 할머니들의 증언에 동료 교사들 모두 놀라움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대학에서 여성학과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권 씨는 한국 여성들의 사고방식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도 토로했다. 권 씨는 또 "교과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다루고 있지 않아 많은 미국 학생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미국도 교과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뤄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동혁 기자 tonylee7@buddhapia.com

천태종 분당 대광사주지 운덕은 창건 2주년을 맞아 11월 9일 국민회합 대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수도권 신도시 분당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처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광사 창건 2주년 기념대법회

"詩 통해 더 쉽게 전법하는데 앞장"

불교시로 등단한 양봉모 광주불교방송 보도부장



"부처님 찬탄하는 노래로 상을 받고 문단에 등단하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최근 월간 '한국시' 11호에서 3편을 출품해 당신의 영예를 안은 양봉모(41·사진) 광주불교방송 보도부장은 "불교시인으로서 시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좀더 쉽게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전에 당선된 양 부장의 시는 광주

원호사를 찾는 '절로가는 길'과 '무각사' '운주사 와불님' 등 호남지역 사찰을 소재로 불교 이미지를 시어로 나타내 심사위원들로부터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불심을 엮어내는 시적 태도가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학창시절부터 시를 써온 양 부장은 바른 직장생활에도 사찰참배를 통해 신심을 쌓으면서 생활 속에 잔잔한 이야기를 시로 써 93년 결혼 때 아내를 위한 '작은 꽃잎 하나에 사랑이 베풀고'를 출간한 바 있다.

양 부장은 관음사 학성회를 거쳐 광주 불교방송 개국과 함께 줄곧 지역불교와 언론을 선도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불교언론인회 추계연수회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공종원)는 지난 11월 8-9일 양일간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추계연수회를 가졌다. 태고총림 총무원장 운산 스님,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 전·현직 불자 언론인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는 선암사 참배, 간담회, 자생차 밭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금번 범어사 주지 선출의 역사적 정당성과 종헌종법상 합법적임을 천명한다.

- 본 범어사는 일제시대 동산노사계서 당대의 거승이며 범어사 중창주인 오성월 대선사로부터 범어사 법통과 승풍유지의 부족을 받은 이래
- 범어사 조실과 계단의 전계화상으로 수많은 선방학인을 차별없이 재접하고 신도들을 교화하며 은법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범어사 문도가 형성되었다.
- 동산노사의 수행력과 대중에 대한 감화력으로 1954년 종단 정화불사 당시에 전국 비구승단의 어른으로 모셔져서 정화불사를 이끌어 마무리 하시고 이후 종정으로 추대되시었다.
- 종단 정화불사 전과정을 통하여 동산노사의 제자와 법승들은 노사의 가르침에 따라 정화불사에 음양으로 진력하였고 따라서 승려로서의 수행본분과 사명감을 더욱 깊이 깨우쳐 승풍진작에 매진하게 되었다.
- 1965년 3월 동산노사계서 입적이래 지금까지 근 40년간 범어사 주지는 노사의 1세 제자들이 주로 담임하였다.
- 수십년 전부터 노사의 2세, 3세 법승들 중에 주지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누구도 주지 경쟁을 하지 아니하였고 현재는 노사의 4세 법승중에도 주지자격이 있으나 주지경쟁에 나서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본사에 대한 애정이나 불사원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동산노사계서 세우신 바

- 화합승가의 질서유지가 그 어떠한 불사보다도 우선하다고 믿고 화합승가의 질서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 2003년 10월 8일 문중회의에서 동산노사의 1세 제자 스님들이 용단을 내려 문중안에서 세대교체를 이루기로 하고 그러나 범어사 승가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동산노사 장자문도(성운지호)의 대표인 홍선스님을 차기 범어사 주지로 정하였고 이에 문도 대중의 뜻이 모아져서 10월 26일 단일 후보로 홍선스님이 등록하게 되었다.
- 그리고 2003년 11월 3일 산중총회에 동산노사의 1세 제자스님들을 비롯, 재적과 반수가 참석하여 원만하게 홍선스님을 차기 범어사 주지로 선출하였다.
- 이와같이 금번 범어사 주지 선출은 범어사 문도의 총의와, 범어사 승가의 전통과, 범어사 산중의 총의에 의하여, 그리고 종헌종법의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선출된 것이다.
- 본 범어사는 이와같이 금번 범어사 주지 선출의 역사적 정당성과 종헌종법상의 합법성을 천명하며 이에 반하는 여하한 왜곡과 억설, 그리고 사사로운 주장에 흔들림없이 범어사 주지 선출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관철할 것임을 사부대중께 밝히는 바이다.